

# 심상치 않은 광주..거리두기 2단계에도 확진자 100명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광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을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9명에 이른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4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30일 12명이 발생해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후 확진자 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감염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2차 유행이 시작

##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통해 N차 감염고리

### 집단감염 매개지 총망라...감염질 매우 나빠

된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누적 확진자만 96명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내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지난 3월 대구광역시의 상황이 재연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감염 경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사우나, 학원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SM 사우나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4명인데 추가 감염자가 나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우나 같이 비밀이 전달되기 쉽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순식간에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감염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그 동안

집단 감염이 주로 이뤄졌던 매개지가 총망라돼 있는 등 감염의 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다.

광복사와 광주사당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요양원과 실버센터와 같은 취약층 시설까지 감염 매개지가 여러 갈래로 퍼져있다.

여기에는 언제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고시원에서 까지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학원에서는 출입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사용, 강의실 내 거리두기, 에어컨 가동시 창문 열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학원이 들어선 6층 복합건물에는 편입

학원과 피트니스센터, 또 다른 고시학원도 입주해 있어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다른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고시학원과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만 170명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필수적으로 'N차 감염' 뒤따르는 것도 문제다.

광주도 한 공간에서 1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발생 사례는 아직 없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파고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만큼 방역망의 틈새도 점차

헐거워지고 있다. 'N차 감염'이 늘어날수록 방역망의 틈이 벌어질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피로감도 쌓일 수밖에 없다. 역학조사도 어려워진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감염 고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으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 식사 금지할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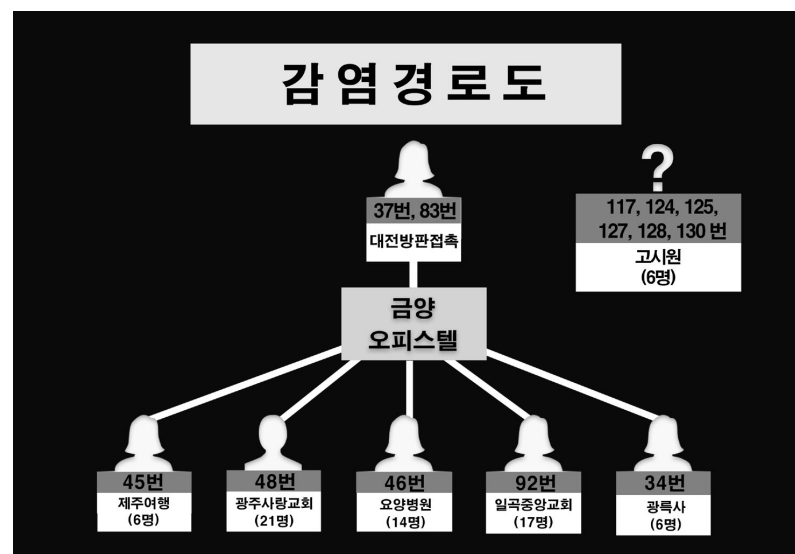
오유나 기자



무더위에 냉조끼 입는 의료진 한낱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8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냉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 광주 감염원 '금양오피스텔'...37·83번 대전 확진자 접촉

최초 '광복사' 아닌 '금양오피스텔'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광주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경로도. 광주시는 금양오피스텔을 최초 감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에서 2차 유행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초 감염원은 방문판매 관련 업체가 있던 금양오피스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 금양오피스텔을 최초 감염원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 37번 환자와 83번 환자가 대전 방문업체 확진자와 6월 초중순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7번 환자는 광복사 관련 첫 확진자인 34번 환자와 접촉했고, 83번 환자는 금양오피스텔 506호

사무실 운영자로 무증상 환자다.

보건당국은 34번 환자보다 금양 관련자인 37번 환자가 더 먼저 감염됐고 83번 확진자도 실제로는 먼저 감염돼 무증상 상태로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12일간 추가 발생한 환자는 97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 3명을 뺀 94명이 지역감염자다.

감염경로는 다양하다. 제주여행 6명, 광주사당교회 21명, 요양병원 14명, 일곡중앙교회 17명, 광복사 6명, 금양오피스텔 22명 등이다. 고시원 관련 환자는 6명이다.

고시원 관련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감염경로는 금양오피스텔과 연결된다. 고시원은 감염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제주여행 관련자는 광주 북구 중흥동에 사는 70대 여성인 49번 확진자가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이 있는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했다.

광주사당교회는 북구 오치동에 사는 60대 남성, 48번 환자가 매개고리다. 48번 환자는 6월 20일 금양오피스텔을 찾아 43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21일 오전 광주사당교회를 방문했다.

CCO(카폐쇄비센터)는 사랑교회 신도이자 요양보호사인 46번 환자가 연관돼 있다. 사랑교회에서 감염 후 아가페 실버센터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일곡중앙교회는 전남 장성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92번 환자가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사는 34번 환자가 37번 환자와 자주 만나 집단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항복지건강국장은 "37번 환자의 동선을 보면 34번 환자와 자주 만났고 아무래도 먼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광복사발'이 아닌 '금양오피스텔발'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지인 돈 100만원 갚아야” 확진 알고도 10시간 잠적

확진 판정 받고 잠적...다음날 공사장에서 발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광역시에서 때아닌 '잠적' 소동이 일어났다. 광주 118번 확진자인 일용직 근로자 6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도 지인의 돈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뒤 이튿날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일각에선 A씨의 부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동정 여론이 일어났지만, 광주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혼인 이력이 없는 1인 가구였다. 남은 건 A씨에 대한

처벌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7일) 광주시 방역당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광주사당교회와 연관된 확진자와 접촉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순대로라면 A씨는 음압병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후 A씨는 "11일까지 지인에 100만원 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며 전화를 끊은 뒤 잠적했다. 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보건당

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속대응팀과 112타격대, 기동대 등 경찰서 가용 인력 142명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일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침 일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사장에 나섰다가 경찰의 수색에 걸렸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A씨를 광주 남구의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최이슬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